

지구혁명을 향해 가치창조의 만파를

이케다 다이사쿠

SGI(국제참가학회) 회장

2014년 1월 26일

한없는 민중의 힘을 결집해 '평화와 희망의 세기'를 개척!

SGI의 날을 기념해 21세기의 조류를 희망과 연대 그리고 평화의 방향으로 전환하고, 모든 사람이 존엄을 빛내며 살 수 있는 '지속가능한 지구사회'를 구축할 방도를 찾고자 합니다.

위협에 대한 저항력과 회복력을 높인다

지난해는 세계경제가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군사비도 감소 추세를 보이는 등 밝은 조짐도 있었지만, 한편 분쟁이나 내전에 따른 인도적 위기가 여전히 끊이지 않았고, 재해나 이상기후에 따른 큰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특히 시리아 정세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분쟁이 4년째에 접어들어 230만명 이상이 타국으로 피난 갔고, 650만명이 국내에서 피난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 빨리 정전(停戰)이 되도록 도모하고, 인도적 지원 환경을 확보함과 동시에 평화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또 지난해 11월에는 사상 최대의 태풍이 필리핀을 강타해 6201명이나 사망했고 대피한 이재민이 약 409만명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인도적 위기가 악화하는 사태를 막고, 열악한 환경에 놓인 난민이나 재해자의 어렵고 궁핍한 상태를 돕기 위한 국제사회의 지원이 더욱더 필요합니다.

또 요 몇 해 사이 재해나 이상기후에 따른 피해가 심각해지는 상황을 고려하면 국제적 지원의 강화뿐 아니라 '어떻게 위협에 대비할 것인가', '위기에 부딪쳤을 때 어떻게 대응하고 어떻게 회복을

피할 것인가.' 하는 관점에서 빨리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사회의 리질리언스를 높여야 할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리질리언스는 본디 물리학 용어로서 외부에서 힘이 가해진 물질이 원상태로 돌아가려는 '탄성(彈性)'을 뜻하는데, 그 작용을 환경파괴나 경제위기와 같은 심각한 외부의 충격에 대해 '사회를 회복하는 힘'이라는 의미로 사용하는 등, 여러 분야에서 주목하는 개념입니다.

재해 분야에서는 방재나 재해 감소와 같이 '저항력'을 강화해 피해 확대를 막는 노력과 함께 피해를 심하게 입은 경우에도 어려운 상황을 하나하나 이겨내며 복구하는 '회복력'을 높여야 한다는 사고방식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를 위해서는 내진성을 강화하고 열악한 인프라(사회기반)를 정비하는 등 정책적인 대응은 물론 "강력한 사회적 리질리언스가 존재하는 곳에는 반드시 강력한 커뮤니티가 존재한다."고 지적하듯이 인적 측면에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

즉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유대나 인간관계의 네트워크와 같은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¹을 평소 어떻게 키우느냐 하는 점을 비롯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역과 사회를 근저에서 떠받치는 사람들의 의사와 생명력'이 바로 중요한 열쇠를 쥐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 리질리언스의 중요성은 제가 평화학자 케빈 클레멘츠 박사와 현재 진행하는 대담에서도 화제가 되어, 재해가 일어난 뒤 대응뿐 아니라 유엔이 외치는 '전쟁의 문화'에서 '평화의 문화'로 전환하는 일처럼 사회의 토양을 변혁하는 데도 큰 의의를 지닌다고 대화했습니다.

대담에서 한 논의를 바탕으로 제창하고 싶은 것은 리질리언스 개념에 내포된 풍부한 가능성을 '위협에 대비해 대응하는 힘'의 범주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희망찬 미래를 열기 위해 발휘해야 할 힘'으로 확장해, 사람들이 참여하고 싶어 하고 보람을 확실히 느낄 수 있는 도전으로 자리매김해야 합니다.

즉 위협에 대처할 뿐 아니라 미래의 창출을 목적으로 삼아 각각의 지역에서 누구나 접할 수 있는 '리질리언스 강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지구사회의 소중한 기반을 구축하는 일'을 인류 공동작업으

¹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

사회와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신뢰나 결속 관계를 나타내는 개념이다. 사회적 자본이 축적된 사회에서는 서로의 신뢰나 협력을 얻기 쉽기 때문에 경제나 교육, 건강이나 행복감이라는 면에도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 점에 관해 정치학자인 로버트 퍼트남이 실증적 연구를 하는 등, 다양한 연구를 추진했다.

로서 추진하는 도전입니다.

토인비 박사가 건 강한 기대

이 크나큰 도전을 전망하는 데 앞서 20세기를 대표하는 역사가 아놀드 토인비 박사가 “우리는 역사를 되풀이하도록 운명 지어진 것은 아니다. 즉 우리 자신이 노력해 우리 차례에 어떤 새로운, 전례 없는 변화를 역사에 남기는 길이 우리에게 열려 있다.”고 한 말이 떠오릅니다.

여기서 말한 “어떤 새로운, 전례 없는 변화를 역사에 남기는 길”은 무엇인가. 저는 한사람 한사람의 처지로 요약해 사람들을 위해, 사회를 위해, 미래를 위해 자신만이 할 수 있는 가치를 지속적으로 창조하는 도전이라고 제기하겠습니다.

예전에(2002년 8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세계정상회의에 보낸 제언에서 “멀리 돌아가는 듯 보여도 인간에 귀착해 인간생명의 개혁과 변혁에서 출발하는 ‘인간혁명’이 바로 ‘지구혁명’을 실현하는 왕도(王道)”라고 주장한 적이 있습니다.

한사람 한사람의 무한한 가능성을 끌어내는 임파워먼트(내발적인 힘의 개화)에 기초를 둔 ‘인간혁명’도 개인의 내면을 변화하는 것으로만 그친다면 진가를 발휘할 수 없습니다.

그 ‘내면 변혁’이 가져오는 용기나 희망이 힘든 현실을 돌파할 가치창조(價値創造)로 결실해야만 ‘사회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고, 그 변화가 거듭되면서 인류가 부딪친 문제를 해결하는 ‘지구혁명’의 길을 한걸음 한걸음 다질 수 있습니다.

또 ‘지구혁명’이 진척되면 괴로움에 잠긴 사람들이 웃음을 되찾게 되고, 그 사람들이 또 임파워먼트로써 무한한 가능성을 꽃피워 지구적 문제들에 맞서는 연대에 힘차게 참여할 것입니다. 이 미시적(微視的)인 변혁과 거시적(巨視的)인 변혁을 같은 축으로 연결해 쌍방의 전진을 연동하면서 시대변혁의 조류를 넓히는 것이 바로 ‘가치창조’의 도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위협을 이겨낼 리질리언스를 높이고, 게다가 ‘지속가능한 지구사회’를 구축하는데 원동력이 되는 ‘가치창조’의 도전을 ①늘 희망에서 출발하는 가치창조 ②서로 연대해 문제를 해결하는 가치창조 ③자타 함께 선성을 불러 깨우는 가치창조 등 세가지 관점에서 논하겠습니다.

파키스탄 소녀 마라라의 신념

첫째로 '늘 희망에서 출발하는 가치창조'를 제기하겠습니다.

지난해 4월, 유엔총회는 무기거래조약을 채택하고 전차나 전투기 같은 대형무기에서 자동소총 같은 소형무기에 이르기까지 통상적인 무기의 수출입을 처음으로 규제하는 조약을 마련했습니다.

대인지뢰금지나 집속탄금지에 이어 이번 조약의 제정을 최대로 지지한 것도 비정부기구(NGO)의 연대였습니다.

이 모두 명확한 전망을 내걸고 민중이 힘을 합해 행동할 때, '전례 없는 변화를 역사에 남기는 길'이 열린다는 것을 보여준 희망적인 실례라고 하겠습니다. 오랫동안 무기거래 규제를 주장한 저도 조약이 하루 빨리 발효되어 인권침해나 잔학행위를 조장하는 무기 확산에 제동이 걸리기를 강하게 바랍니다.

아직도 세계는 분쟁이나 내전과 함께 무장세력이나 범죄조직의 폭력이 횡행해 강압적으로 목숨을 빼앗기는 등 깊은 상처를 입는 사람이 끊이지 않습니다.

여성이 교육받을 권리를 주장하다 2년 전에 총격을 받고 죽을 뻔했던 파키스탄의 마라라 유스후자이 소녀도 그중 한 사람입니다. 기적적으로 목숨을 건진 뒤에도 굴하지 않고 계속해서 행동하는 마라라는 지난해 7월에 유엔본부에서 연설할 때, 그 심정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 안에서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있다면 단 한가지 약함과 공포, 절망이 사라지고 강인함과 힘, 용기가 생겼습니다. 저는 그때와 똑같은 마라라입니다.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마음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희망도 꿈도 전과 같습니다.”

마라라가 그 뒤에도 협박을 받으면서도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고 행동할 수 있었던 까닭은 자신과 같이 불합리한 억압이나 부당한 취급을 받고 괴로워하는 여성과 어린이들이 목소리를 높이고,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스스로 일어서기를 바라는 마음이 강했기 때문입니다.

재해나 경제위기와 같은 돌발적인 위협에 부닥치거나 일상적으로 행해지는 정치적인 탄압이나 인권억압의 위협을 당하면 인간은 공포와 슬픔 또 고통으로 깊은 절망에 빠져 움짱달짝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마음이 절망의 어둠에 덮여 포기과 무력감으로 움짱 못하는 상태가 계속되면 문

제해결이 멀어질 뿐 아니라 같은 위협이 각지에서 맹위를 떨치는 사태가 되풀이되고 맙니다.

마키구치 초대 회장이 중요하게 여긴 인격가치

제2차 세계대전 중에 강제수용소에서 겪은 장절한 체험기 '밤과 안개'로 알려진 정신의학자 빅토르 E. 프랑클 박사는 이러한 절망의 어둠을 거들 희망의 광명은 '자기 목적'이 아닌 "어떤 것을 위해, 누군가를 위해 고뇌할 때만" 빛나기 시작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프랑클 박사는 고난에 부딪혔을 때 인간정신이 펼치는 응전 드라마가 보여주는 진면목을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인생에서 피할 수 없는 운명적인 타격을 어떤 태도로, 어떤 자세로 받아들이느냐가 중요하다. 그러므로 인간은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 삶의 의미를 획득해 내 것으로 할 수 있다."

박사는 이 인간정신이 펼치는 응전을 '태도가치(態度價値)'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어떠한 조건 어떠한 상황에서도 인생에는 의미가 있다'고 확신하고 고난과 마주하면 결국 그 생명의 빛이 괴로움을 안은 다른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는 광명이 되기에 '개인의 비극을 인간의 승리로 바꾸는' 길을 여는 가치창조임에 틀림없습니다.

박사의 인생에서 최대 시련기이던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사상통제를 강요하는 일본의 군부권력과 맞서다 투옥된 우리 창가학회의 마키구치 쓰네사부로(牧口常三郎) 초대 회장도 이 '태도가치'에 흐르는 인간정신의 빛과 상통하는 '인격가치(人格價値)'를 기르는 일이 교육의 최대 목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교육학설을 발간하는 데 같은 교육자이며 제자인 도다 조세이(戶田城聖) 제2대 회장과 의논해 그 명칭에 가치창조를 의미하는 '창가(創價)'를 붙였습니다.

이 '창가교육학체계'를 발간한 지 내년으로 85주년을 맞습니다. 마키구치 초대 회장은 그 책에서 인격가치를 체현하는 모습의 예로써 "평소에는 그다지 주목받지 못해도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저 사람이 있으면' 하고 모두가 신뢰하는 사람이며 늘 사회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이어주는 존재"를 들었습니다.

희망을 무기로 곳곳이 싸운 만델라

오늘날 이 '인격가치'의 빛을 발하며 전 세계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준 분이 지난해(2013년 12월) 안타깝게도 세상을 떠난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넬슨 만델라 전 대통령입니다.

악명 높은 아파르트헤이트(인종분리정책)의 폭풍우가 휘몰아치는 와중에 27년 반에 이르는 옥중 투쟁을 이겨낸 만델라 씨도 감옥에서 어머니의 부고를 받고, 아내가 체포되고, 큰아들까지 사고로 사망하는 비극이 잇따라 일어났을 때에는 정말이지 기력을 거의 잃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만델라 씨는 굴하지 않고, 지인에게 보낸 편지에 '희망은 다른 것이 아무것도 남아 있지 않을 때에도 강력한 무기'라고 썼습니다.

그 뒤 손녀가 태어났을 때는 만델라 씨가 마지막 버팀목으로 삼았던 '희망'이라는 뜻의 단어를 따서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손녀가 머지않아 "아파르트헤이트를 먼 추억으로만 여기게 될 남아프리카의 새로운 세대의 일원이 되리라." 확신하며 그 꿈을 실현할 때까지 끝까지 싸울 것을 맹세하고 1만일에 이르는 감옥생활을 견뎌냈습니다.

나는 만델라 씨와 두 번 만나면서, 걸어온 길은 달라도 꿈을 실현하기 위해 인생을 바쳐온 '모든 인간의 존엄이 빛나는 사회'를 함께 이야기한 일이 떠오릅니다.

특히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연 아파르트헤이트 철폐는 자기 한 사람의 공적이 아니라 많은 사람의 의지가 모여 이루어낸 것이라는 만델라 씨의 신념에 감명했습니다. 1994년에 대통령에 당선했을 때, 많은 민중 앞에서 한 연설에는 그의 신조가 응축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이 나라를 여러분 것으로 다시 선포하기 위해 묵묵하고도 인내심 있게 결단력을 보여 주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높은 곳에 서서 큰 소리로 기쁘게 선언합니다. 드디어 자유입니다! 드디어 자유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프랑클 박사가 제기한 점(태도가치는 아무리 혹독한 환경에서도 숨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 발휘할 수 있다)과 더불어 만델라 씨가 실례로 강조한 점(인격가치는 특별한 인간뿐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에게도 열려 있다)에서, 이 가치창조의 도전에는 늘 두 가지 희망이 깃들어 있다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현실변혁의 법리를 설한 니치렌대성인

우리가 신봉하는 불법사상도 자신이 놓인 환경이 아무리 심각한 상황에 놓여도 자신의 사명을 완수할 장으로 정하고 '희망의 이야기'를 엮어가는 '서원(誓願)'의 삶을 촉구합니다.

그것은 13세기 일본의 봉건사회에서 당시 권력자에게 "왕지(王地)에 출생하였으므로 몸은 따르고 있는 듯하지만 마음까지도 따를 수가 없는 것이니라."(어서 287쪽) 하고 어떤 것에도 침해받지 않는 정신의 자유를 드높이 선언한 니치렌대성인(日蓮大聖人)의 말씀입니다.

당시 지진이나 태풍 같은 재해를 비롯해 기아나 역병이 되풀이되어 많은 민중이 도탄에 빠져 허덕이는 와중에 대성인은 그 상황을 어떻게든 타개하고자 막부 권력자에게 잘못된 정도(政道)를 바로잡으라고 거듭 간언했습니다.

그 때문에 습격을 당하고 사형선고를 받고 두 번 유배를 받으면서도 "니치렌은 한번도 물러설 마음이 없었노라."(어서 1224쪽) 하고 사람들의 고통을 없애고자 신념에 찬 행동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이어지는 재난에 살 희망을 거의 잃은 민중에게서 마지막 기력(氣力)까지 잘라내는 사상에 철저히 맞서 싸우는 한편, 고뇌에 의욕을 잃은 사람들을 끌어안듯이 격려하며 "땅에 넘어진 사람은 오히려 땅으로부터 일어나는 법이니"(어서 1586쪽) 하고 어떠한 고난도 이겨내는 힘이 모든 사람의 가슴속에 갖춰져 있음을 힘주어 말하며 용기를 주었습니다.

이럴테면 혹독한 상황에서 어떻게든 빠져 나오고 싶어 하는 사람들에게 '어딘가 다른 곳에 가면 바로 문제가 해결되고 행복해진다.'는 생각을 품게 하는 사상에 대성인은 정면으로 맞서며 "이곳을 떠나서 저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니라."(어서 781쪽) 하고 강조했습니다.

"정토(淨土)라고 하고 예토(穢土)라 함도 토(土)에 둘의 차이가 없으며 오직 우리의 마음의 선악(善惡)에 의한다고 쓰여 있다."(어서 384쪽)고 있듯이 지금 자신이 있는 곳에서 고뇌를 정면으로 바라보며, 절망의 어둠으로 뒤덮인 그곳을 '비극의 무대'에서 '사명의 무대'로 바꾸고 고뇌에 도전하는 자신의 모습을 통해 '같은 괴로움을 안고 있는 사람들이 살아갈 희망을 되찾는 곳'으로 전환하는 길을 택하도록 촉구했습니다.

더욱이 대성인은 사회에서 어떠한 비극이 일어나도 나와 상관없다며 자신의 세계에 틀어박히는 '현실도피' 경향을 조장하는 사상의 잘못을 바로잡고자 끝까지 싸웠습니다.

불교에도 불행에 빠진 사람들을 구하는 방편으로 괴로움과 미혹이라는 집착에서 벗어나는 길을 설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임시의 가르침이지 석존의 본의(本意)가 아닙니다.

따라서 법화경 약왕품에 나오는 “이일체고(離一切苦)”(일체의 고통에서 떠나다)라는 경문도 “이(離)의 자(字)를 ‘분명히 밝히다’라고 읽는다.”(어서 773쪽, 취의) 하셨습니다.

즉 눈앞의 문제를 마치 없는 일처럼 의식에서 배제하면 문제 해결은 지연되고 상황은 더욱 악화될 뿐이므로, 괴로움에 정면으로 맞서 원인을 밝히고 해결 방안을 모색해 비극이 덮치기 전보다 더 평화롭고 행복한 사회를 구축하는 길을 선택해야 한다고 설했습니다.

‘서원(誓願)’의 다른 말은 ‘삶의 증거’

또 대성인은 사회가 점점 혼란해지는 상황을 부동의 현실로 감수할 수밖에 없다고 여기는 ‘현실 추종’ 사상에 관해, 불법이 설하는 ‘여연화재수(如蓮華在水)’의 법리(法理)를 들어 사회의 혼란이 깊어질수록 인간의 생명은 무한한 힘을 발휘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연꽃이 흙탕물 속에서 오염되지 않고 아름다운 꽃을 피우듯이, 사회를 어지럽히는 갖가지 과제 한가운데로 용감히 몸을 던져 현실 속 과제와 격투하면서 자신의 생명력을 강화하는 양분을 하나 또 하나 흡수한다, 그러면서 자신을 ‘희망의 대륜(大輪)’으로 꽃피우며 사회에 ‘현실변혁의 결실’을 가져다 주는 길을 선택하라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한편 현대에도 핵무기 위협이나 환경파괴처럼 문제가 심각할수록 가급적 생각하고 싶지 않은 과제로 멀리하려는 풍조가 강하고, 비록 위기의식을 지닌 사람이라도 자신의 혼자 행동으로는 아무 것도 바꿀 수 없다고 포기해 버리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 무의식이나 무기력의 벽을 부수려면, 만델라 씨가 “사람이란 행동하지 않을 수 없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람은 부정에 반응하지 않을 수 없고, 압제에 항거하지 않을 수 없고, 좋은 사회와 좋은 삶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고 외친 ‘사명감’이나, 환경운동가 왕가리 마타이 박사가 “우리는 상처 입은 지구가 회복하도록 돕고자 이 세상에 태어났다.” 하고 말한 ‘맹세’를 관철하는 행동이 가장 필요합니다.

앞에서 언급한 ‘여연화재수’도 스스로 원해서 점점 더 혼란해지는 시대에 태어나 실의에 빠진 사

람들을 위해 행동하는 삶을 관철하겠노라고 석존 앞에서 '서원'한 지용보살의 모습을 나타낸 법화경의 말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서원'은 누군가 행동하기를 기대하며 사태가 바뀌기를 기다리는 바람도, 상황이 악화하면 저버리는 약속도 아닙니다. 어떠한 곤란이나 시련이 덮쳐도, 아무리 세월과 노력이 들어도 반드시 해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서원'은 자신의 모든 존재를 건 '삶의 증거'의 다른 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유엔의 활동을 지원하는 일은 불법자(佛法者)로서 필연

우리 SGI는 대성인이 불법의 간심(肝心)이라고 강조한 지용보살의 '서원'의 삶을 모범으로 삼습니다. 그것은 스스로 세운 맹세를 완수하려고 도전하면서 어떠한 현실에서도 긍정적 가치를 낳는 내발적인 힘을 연마하고, 각자의 지역에서 고통에 허덕이는 사람들에게 다가가 서로 격려하며 '자타(自他) 함께 행복'을 지향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사회에서는 지구적 문제들을 해결하려는 유엔의 각종 활동을 시민사회의 측면에서 한결같이 지원했습니다.

1989년 12월, 유엔의 라퓨딘 아메드 사무차장 그리고 안 모텐손 사무차장과 회담하면서 그 지원에 거는 심정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평화'와 '평등' 그리고 '자비'를 설하는 불법의 이념은 유엔이 추구하는 길에도 통합니다. 그러한 유엔을 지원하는 일은 우리에게 이른바 '필연(必然)'입니다. 또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법자로서 완수해야 할 자신의 사명을 기만하는 일이 됩니다.”

이상(理想)이 클수록 자신의 대(代)에서 완수하지 못할 경우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만델라 전 대통령이나 마타이 박사처럼 자신의 존재와 분리할 수 없는 '사명감'이나 '맹세'를 완수하고자 곳곳이 사는 모습은 그 일생을 마친 뒤에도 많은 사람을 고무하는 길잡이 별이 되어 영원히 빛납니다. 그 원리를 대성인은 “미래까지의 설화(說話)로 무엇이 이보다 더하리오.”(어서 1086쪽)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사람이라도 발휘할 수 있고 미래까지 비출 수 있는 이 삼중(三重)의

의의를 지닌 '희망'에서 항상 출발하는 가치창조의 도전이 바로 심각한 위협이나 문제에 맞서는 기반이 되고 '평화와 공생의 지구사회'라는 이상을 실현하는 가교가 되지 않을까요.

고통에 허덕이는 사람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는다

이어서 둘째로 제기하는 점은 '서로 연대해 문제를 해결하는 가치창조'입니다.

최근 리질리언스 연구를 진행하면서 그 열쇠가 되는 몇 가지 중요한 요소가 부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리질리언트(회복력 있는) 커뮤니티는 깊은 신뢰에 뿌리내린 일상적인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혼란에 대처하고 상처를 치유한다'는 점이나 '리질리언스를 인위적으로 붙여넣으려는 노력은 성공하기 어렵지만 그 노력이 일상 활동에 뿌리내린 인간관계에서 진정으로 나타날 때 리질리언스는 꽃을 피운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깊은 신뢰'를 쌓는 자기장이 되고 '일상 활동에 뿌리내린 인간관계'를 구축하는 데 발판이 되는 사회적 자본은 해마다 약해지는 경향을 보입니다.

또 그것이 사회적 자본이 지닌 완충지대의 기능을 약화하여, 여러 가지 위협이나 사회가 부딪친 문제가 한사람 한사람에게 직접 영향을 끼치는 현상을 불러왔습니다.

그 결과 역경에 처한 사람들 대부분이 고통을 홀로 끌어안은 채 삶의 희망을 잃거나 또는 어떤 일이든 자신을 우선시하며 어떻게든 살아남으려는 양극단적 '고립' 상태로 나뉘는 사태가 발생해 크게 염려됩니다.

경제철학자 세르주 라투슈 씨가 약육강식적 경제 경쟁에서 버려진 사람들의 존엄을 되찾고자 '더 인간적인 사회'(société décente: 민중을 욕되게 하지 않는 사회)를 지향해야 할 필요성을 주장해 타자와 즐거움이나 기쁨을 나누는 일을 뜻하는 '컨비비앨러티(Conviviality: 공생공락<共生共樂>)'의 가치를 그 기축 중 하나로 들었는데, 중요한 문제 제기라고 생각합니다.

불법에서도 이 '컨비비앨러티'가 지향하는 바와 상통하는 "희(喜)란 자타(自他) 공(共)히 기뻐하는 것이니라."(어서 761쪽) 하는 가르침을 설합니다.

이렇게 서로 기쁨을 나누는 일에서 '부(富)의 빛'이 아닌 '존엄의 빛'이 가득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전망 그리고 '가장 고통받는 사람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는다' 동고(同苦)의 정신을 현대사회의 골격으로 삼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간과 인간의 유대가 희박해진 시대의 흐름 속에서 그런 사회로 전환하는 일은 터무니없는 난제(難題)로 여겨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흐름이 아무리 맞서기 어려워 보여도 인권운동의 투사 마틴 루터 킹 박사가 강조했듯이 '우리는 모두 상호의존이라는 벗어나기 힘든 그물에 갇혀 있고, 같은 운명의 옷을 입고 있으며' '우리는 힘을 모아 함께 살아가도록 만들어져 있다'는 점이 이 세계의 실상이 아닐까요.

불법 사상도 킹 박사의 주장과 상통하는 '연기관(緣起觀)'을 설하는데, 아무리 인간끼리 표면적인 유대를 잃어버려도 생명과 생명이 엮어내는 연관성이 세계를 형성한다는 실상은 변하지 않으며, 사람들의 행동으로 얼마든지 '긍정적 연쇄 효과'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함마르셀드가 벗에게 남긴 말

세계 재해지역을 취재한 논픽션 작가 리베카 솔니트 씨도 "재해를 입었을 때 어둠을 밝히는 단결과 이타주의 그리고 즉시대응성으로 만들어진 별자리는 이미 대부분의 사람들 속에 존재하며 중요한 때에 그것이 나타난다." 하고 강조했는데, 긴급할 때 외에는 '동면(冬眠)' 상태가 되기 쉬운 협력이나 동고의 정신을 평소에도 활발하게 발휘할 수 있도록 마음을 써야 하지 않을까요.

솔니트 씨는 '세이코신문' 인터뷰(2012년 4월 24일자)에서 재해가 발생했을 때 서로 도우려는 마음이 생기는 조건으로 '한사람 한사람이 커뮤니티의 일원이라고 느낄 때'나 '커뮤니티 안에서 스스로 소리를 내고, 영향을 미치고 자신의 역할을 느낄 때'를 들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조건들이 킹 박사가 '우리는 힘을 모아 함께 살아가도록 만들어졌다'고 표현한 인간성을, 언제든지 불러 깨우는 요건이 되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행동하는 연대를 넓히는 전제가 된다고 제기하겠습니다.

여기서 제2대 유엔사무총장을 지낸 다그 함마르셀드의 말이 떠오릅니다.

오랜 우인인 존 스타인벡 작가와 회식하는 자리에서 스타인벡이 "함마르셀드와 유엔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없겠는가?"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함마르셀드가 "땅에 앉아 사람들에게 말을 건네주십시오.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각지의 분쟁을 해결하고자 고난을 감수하고 행동해 유엔의 양심으로 지금까지 존경받는 인물이 한 말입니다. 게다가 그것은 아프리카의 콩고 동란을 중재하는 과정에서 뜻밖에 죽음을 맞이 2주 전쯤에 한 말로, 저는 이 짧은 말에서 '유엔이나 인류가 부딪친 문제를 해결하는 일도 천릿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말처럼 한사람 한사람이 자기 인생의 닳을 내린 곳에서 모두와 마음을 열고 서로 대화하며 연대를 맺고 행동을 일으키는 길뿐'이라는 함마르셀드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솔니트 씨가 말한 '한사람 한사람이 커뮤니티의 일원이라고 느낄 수 있는' 상황을 만들려면 무엇보다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대화'입니다.

대화라 해도 어렵게 생각해 경계하거나 해결책을 찾을 때까지 멈추지 못한다는 갑갑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함마르셀드의 말에 깃든 다정함처럼 '대화하는 장소에 함께 있는 것을 기뻐한다'고 하는 대화의 과정을 소중히 여기는 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많은 사람과 서로 깊이 알게 되는 '대화'를 가장 즐겁게 여기며 인생 최대의 기쁨이 되는 양식으로 삼았습니다.

무엇보다 생활 터전인 지역에서 '대화'를 넓히면 자기 존재를 받아들여주는 '안심공간'도 넓어집니다. 또 '대화'에는 온갖 장벽을 뛰어넘어 같은 문제로 가슴 아파하는 사람들을 하나로 잇는 힘이 있고, '대화'로 서로의 마음속에서 '같은 뜻'을 발견하는 기쁨은 공통문제에 대처하는 연대를 저절로 강화합니다.

한 사람에게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고 해도 연대라는 횡적 연계가 없다면 그 진가를 발휘하기 어렵고, '대화'로 길러진 연대이어야만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벽에 부딪혔을 때도 다시 '대화'로 새로운 길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이뤄낸 '작은 전진'을 함께 기뻐하며 목표를 향해 더한층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타자를 위한 행동'이 낳는 긍정적 연쇄 효과

이어서 '자신의 역할을 느낀다'는 둘째 요건에 비추어 볼 때, 여러 가지 문제가 불러오는 고통을 함께 나누고 연대하여 일으키는 행동이 커뮤니티 안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저는 로마클럽의 공동회장인 에른스트 폰 바이츠제커 박사와 현재 대담을 진행하고 있는데, 거기서 화제가 된 '자발적 노동'(주위 사람들이나 장래 세대를 위해 스스로 추진하는 활동)은 고통을 함께 나누는 연대의 의의를 생각하면 한가지 시사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발적 노동'의 의의는 '타자를 위해 힘쓰는 일'에만 귀착하지 않고, 그 행위로써 '더 나은 자신이 만들어진다'는 '긍정적 연쇄 효과'가 일어나는 데 있습니다.

인간의 존엄은 혼자서 빛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타자라는 두 강기슭을 잇는 마음의 다리가 놓였을 때 비로소 가장 존귀한 빛을 발하기 시작합니다.

불전(佛典)에 "남을 위해 불을 밝히면 내 앞이 밝아지는 것과 같다."(어서 1598쪽)고 씌어 있듯이, 타자에게 힘쓰는 행위가 내는 빛이 그대로 자신의 존엄을 밝히는 빛이 됩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에 부닥쳐 깊은 고뇌를 안고 있다 해도 격려의 불꽃을 밝힐 수 있으며 그 불꽃이 내는 빛은 상대의 고뇌뿐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뒤덮은 고뇌의 어둠까지도 물리친다고 불법은 설합니다.

지역에 공헌하는 활동이나 자원봉사 또는 NGO 활동뿐 아니라 괴로움을 안은 사람들이 서로 손을 맞잡고 '긍정적 연쇄 효과'로 기쁨을 넓히는 행동은 '대화'와 더불어 모든 사람의 존엄이 빛나는 사회를 구축하는 데 커다란 원동력이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 무한한 가능성은 유엔개발계획의 헬렌 클라크 총재가 '만일 세계 70억 인구가 인류 공통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협동한다면 헤아릴 수 없이 큰 변화를 낳을 것'이라고 강조한 점이기도 합니다.

지역의 문제는 물론, 인류 공통의 과제를 해결하고자 헤아릴 수 없는 변화를 낳는 데 초석이 되는 것이 바로 '타자와 기쁨을 공유'하며 맺어진 연대이고, 그 연대를 바탕으로 한 가치창조의 도전입니다.

제1차 세계대전을 계기로 발생한 전쟁의 이변

끝으로 '자타 함께 선성을 불러 깨우는 가치창조'를 제기하겠습니다.

올해로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한 지 100년이 되는데, 이 세계대전을 마디로 전쟁의 양상에 큰 이변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중 한가지는 '대상의 무차별성'으로, 공업력의 발달로 거리나 지리적 제약을 받지 않고 공격할

수 있게 되었고, 전방과 후방의 실질적인 경계가 사라지면서 전투기로 도시를 폭격해 일반 시민을 전쟁에 끌어들이고, 잠수함으로 민간 선박을 포함해 무차별적으로 어뢰 공격을 한 점입니다.

또 한가지는 '수단의 무제한성'으로, 전쟁의 규모가 커지면서 각각의 전국(戰局)을 조금이라도 빨리 이로운 쪽으로 이끄는 일이 중요한 과제로 떠올라, 전투 성과를 효율적으로 높이고자 독가스 등 비인도적인 무기를 사용한 점입니다.

이러한 이번은 국민과 자원을 최대로 투입해 적국을 압도하려는 '총력전(總力戰)' 사상이 움트면서 진행되었기에, 제1차 세계대전 때는 전투원의 희생자가 늘어났을 뿐 아니라 일반 시민도 희생자가 많이 나왔습니다. 이러한 경향은 제2차 세계대전 때 점점 더 심해져 전투원은 1700만명이 희생되었는데 일반 시민은 3400만명이나 희생되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무차별성'은 오늘날에도 계속해서 추구하고 있으며, 가장 두드러진 것이 적측에 속하는 모든 인간을 전멸하는 일도 마다하지 않는 '핵무기'이고, 또 다른 상징은 원격 공격의 최종 진화형이라 할 수 있는 존재로 최근 국제사회에서 불안이 높아지는 '무인기 공격'입니다.

무인기 공격은 테러 조직이나 무장세력 등 '자국을 위협한다'고 간주하는 존재를 원격조작으로 공중폭격을 해 제거하려는 행위인데, 본디 재판 등으로 대처해야 할 일을 일방적으로 무력을 행사한다거나 주변 주민이 공격에 말려들어 '부수적인 피해'로 용인하는 자세를 문제로 삼아 지난해에는 유엔인권이사회가 전문가 팀에 의뢰해 실태를 조사했습니다.

핵무기와 무인기 공격은 모두 인도주의나 인권 정신에 어긋날 뿐 아니라 그 바탕에는 일단 적으로 간주하면 어떤 인간이든 살려둘 여지가 없으며 어떤 수단을 사용해도, 어떤 희생이 따라도 상관없다는 '궁극적 배제' 사상이 깔려 있습니다.

선악 이원론(二元論)에 따른 준별(峻別)이 사회를 좀먹는다

이러한 선악 이원론적 준별이 인간의 정신을 어떻게 좀먹는가.

일찍이 사회윤리학자 시셀라 북 박사가 스페인 내란²에 몸 바친 스티븐 스펀더 시인의 보고를 통

² 스페인 내란

1936년부터 1939년까지 스페인에서 일어난 내란이다. 군부 우익 세력이 인민전선파(좌파 세력)

해 이렇게 논한 일이 떠오릅니다.

“스펜더는 당파심의 결말을 이렇게 기록했다.

적대하는 파시스트 세력에게 살해된 아이들의 사진을 보았을 때는 ‘격렬한 슬픔에 휩싸였다’고 하면서, 좌파 세력이 범한 잔학한 행위를 파시스트 세력이 비난했을 때는 ‘놈들이 거짓말을 한다고 분노를 느꼈을 뿐’이라고 했다.

그러한 스펀더도 ‘살해된 모든 아이들을 공평하게 여기지 않으면, 확실히 어린이가 살해되는 일에 전혀 개의치 않게 된다’고 생각할 때가 있었는데, 스펀더는 그러한 마음의 작용에 어떤 공포를 느꼈을 정도였다.

즉 스펀더는 ‘그의 편에 서서 싸우는 사람들의 생명의 위험성에 대한 맹렬한 관심과, 파시스트의 책략에 대한 그의 공포와 불신’으로 인식이 비뚤어져 ‘파시스트 측 아이들에 대한 관심을 모두 잃고 그들의 재난을 단지 허위 선전으로 간주하게 되었다’고 한다.”

자기 쪽에 ‘선’을 두고 자신이 적시하는 사람들을 모두 ‘악’으로 보는 사상은 이데올로기의 대립으로 세계를 분단시킨 동서냉전이 종결된 뒤에도 갖가지 형태로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테러의 위협’ 때문에 특정 종교를 믿는 사람들을 싸잡아 위험하게 여기는 풍조를 부추기는 움직임을 비롯해, 고조되는 ‘사회 불안’을 배경으로 그 원인의 화살을 특정 민족이나 인종에 돌리는 증오범죄(Hate Crime)³나 증오언설(憎惡言說) 그리고 ‘안전보장’이라는 명목 아래 사람들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인권보다 우선이라며 감시를 강화하는 경향이 짙어지는 등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테러의 위협이나 사회 불안에 대처하고 안전보장이 필요하다 해도 그 저류(底流)에 선악 이원론 사상이 있는 한, 오히려 공포나 불신의 소용돌이가 거세져 사회 균열이 더욱 심해질 우려가 있습

정부에 대항해 봉기했다. 정부 측은 소련이나 국제 의용군의 지원을 받았지만 독일과 이탈리아 파시즘 세력의 원조를 받은 군부 우익 세력에게 패배해 프랑코 장군의 독재 체제가 성립되었다. 당시 국제 의용군에는 소설가 조지 오웰이나 시인 스티븐 스펀더를 비롯해 많은 지식인이 참전했다.

³ 증오범죄(Hate Crime)

인종, 민족, 종교 등 특정의 속성에 대한 증오나 편견을 갖고 가하는 범죄행위이다. 1990년대 이후, 미국을 중심으로 확산되었고, 요 몇 해 사이에도 경제 불황의 영향으로 사람들의 불안이나 불만을 배경으로 심각해졌다. 증오언설(Hate Speech<憎惡言說>, 명확한 차별적 의도를 지니고 폭언이나 차별적 행위를 선동하는 말과 행동)과 함께 각 나라에서 커다란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니다. 거기에는 늘 '선'의 편에 서 있다고 자부하면서도 어느새 자신이 '악'으로 간주한 대상에 투영된 이미지 즉 비인도적이고 억압적인 행동을 마치 거울에 비치듯이 자신도 실행에 옮기고 마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렇지 않고 만델라 대통령이 취임을 맞아 "우리는 계속되는 가난과 핍박과 고통과 성차별과 다른 모든 차별의 굴레에서 우리 국민 모두를 해방시킬 것을 우리 스스로에게 맹세합니다. 이토록 아름다운 땅에서 사람이 다른 사람을 탄압한다는 경험이 절대로 절대로 그리고 또 절대로 재현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고 세계를 향해 선서했듯이, 테러의 위협이나 사회 불안에 대처하고 또 안전보장을 위해 행동할 경우에도 '어떠한 사람도 억압하면 안 된다'는 원칙에 서서 비뚤어진 사회를 하나하나 바로잡는 노력을 끈질기게 추진해야만 문제를 해결할 지평이 열립니다.

불법의 십계호구론이 제시하는 시좌(視座)

불법이 설하는 '십계호구론(十界互具論)'은 이 선악이원론 사상을 뛰어넘는 시좌(視座)를 제시합니다.

선한 생명 상태에 있는 사람도 악한 마음의 작용을 갖추고 있기에 연에 분동되어 휩쓸리지 않도록 훈계하는 한편, 아무리 악한 생명 상태로 뒤덮였다 해도 그것은 고정된 것이 아니므로 모든 사람은 자기 일념의 전환과 행동으로 선성을 훈발(薰發)할 수 있다고 강조한 가르침입니다.

전자의 예를 상징하는 이야기로 '걸안의 바라문' 설화가 있습니다.

—석존의 십대제자 중 한 사람인 사리불이 과거세에 보살도를 수행하며 보시행에 힘쓸 때 바라문이 찾아와 눈을 달라고 했다. 사리불이 눈을 주자 고맙다는 말조차 하지 않고 냄새가 고약하다며 땅에 내던지고 발로 밟아버렸다. 기가 막힌 사리불은 '이 따위 인간은 구제할 필요가 없다'며 오랫동안 이어온 수행을 그만두었다.—

이 설화에서 중요한 점은 눈을 주는 행위가 고통스러웠다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가 유린당하자 참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눈을 줄 때까지는 이타의 정신이 마음의 중심에 있었지만, 그 마음을 짓밟힌 순간 사라져 버렸고, 타인의 행복보다 자신의 깨달음만을 추구하겠노라며 마음을 닫아버린 결과 사리불은 오랫동안 이기주의의 어둠에 갇혀 고통받습니다.

니치렌대성인은 이 설화를 인용해 누구라도 쉽게 연에 분동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그 부정적인

힘을 이겨내려면 “원컨대 나의 제자 등은 대원(大願)을 세우라.”(어서 1561쪽) 하셨습니다. 즉 사람들을 위해 행동하겠다고 맹세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늘 그 맹세로 돌아가는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후자의 예로, 고대 인도의 아소카 대왕이 마음을 바르게 고쳐먹은 사실(史實)을 들 수 있습니다.

—기원전 3세기 무렵, 마가다왕국의 아소카 대왕이 칼링가국을 정복했다.

10만명을 죽이고, 15만명을 포로로 잡고, 집을 불태우고, 가족을 잃은 사람들의 비탄 소리가 천지를 뒤덮은 지옥 같은 광경을 보면서 온갖 포악한 짓을 다한 아소카도 통절한 회한에 시달렸다.

자신을 책하며 괴로워한 끝에 마음을 고쳐먹은 아소카는 다시는 전쟁을 일으키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다른 나라에 평화사절단을 파견하거나 문화교류에 힘쓰면서 불살생(不殺生) 등의 사상을 넓히고자 돌기둥 등에 법칙(法勅)을 새겨 각지에 남겼다.—

이러한 아소카 대왕의 ‘혼을 바꾼 드라마’를 놓고 인도의 날리칸타 라다크리슈난 박사와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마하트마 간디의 연구로 유명한 박사가 “처음에는 폭군이라고 두려워하던 아소카 대왕조차 평화의 지도자로 바뀌었습니다. 자신을 변혁했습니다. 즉 아소카는 한사람 한사람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누구나 자신을 바꿀 수 있습니다. 간디는 그렇게 보았습니다.” 하고 지적인 일을 잊을 수 없습니다.

침묵이나 방관의 벽을 허무는 길

이 사실에 근거를 둔 확신이 있기에 간디는 ‘내면의 악’과 대치해 자신을 끊임없이 정진하며 “인간성에는 서로 반응하는 것이 있다는 불멸의 신념”을 불태워 “자신도 전진하면서 때로는 적대하는 사람들까지도 함께 데리고 가는” 아힘사(비폭력)의 길을 관철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불법의 ‘십계호구론’은 서로를 ‘악’으로 규탄하거나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일으킬 수 있는 ‘사회의 악폐’를 뿌리 뽑기 위해 서로 잊지 말고 ‘내면의 악’을 응시하며 자타 함께 ‘선성’을 훈발하는 삶을 선택하라고 촉구합니다.

어떤 집단 안에 배타적이고 폭력적인 방향으로 강하게 이끄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서 집단 전체를 적대시하는 일은 증오의 연쇄를 불러 올 뿐이기에 '배타적이고 폭력적인 어떠한 행위에도 명확히 반대하는 사람들의 연대'를 견고히 하는 노력을 모든 차이를 뛰어넘어 사회 전체로 넓혀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 SGI가 유엔이 제창한 '평화의 문화'나 '인권문화' 건설에 지금까지 힘을 쏟은 까닭도 그러한 사회적 토양이 일구어지리라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간디의 사상을 계승하며 인권을 위해 싸운 킹 박사는 자신의 인권 운동을 공격하는 세력 이상으로 자유를 획득하는 데 큰 장벽이 되는 것으로 '정의보다 <질서> 유지에 열중'하는 태도를 비롯해 '선한 사람들의 소름 끼치는 침묵'이나 '자기만족의 무위방관주의' 등을 들어 경종을 울렸습니다.

말하자면 '인권문화' 건설은 그러한 함정 즉 사회악을 만연시키는 일에 결과적으로 가담하고 마는 태도를 서로 경계할 뿐 아니라, 한사람 한사람의 선성을 훈발하는 임파워먼트를 통해 누구나 인간의 존엄을 지키는 주체자로서 공헌하는 사회를 지향하면서 모두의 힘으로 인권을 강화하는 도전입니다.

마침 유엔이 추진하는 제3차 '세계 인권교육 프로그램'(2015년~2019년)은 대중매체 등을 우선 대상으로 삼으면서 특히 고정관념이나 폭력에 대처하고 '다양성 존중'을 배양하는 평등이나 비차별(非差別)에 관한 교육과 연수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SGI도 세계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2005년에 시작한 뒤로 일관해서 이를 지원하는데 이 지원을 중심으로 유엔기구나 다른 NGO와 힘을 합해 '자타 함께 선성을 불러 깨우는 가치창조'에 전심전력을 다해 도전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모든 사람이 존엄을 빛내며 살 수 있는 '지속가능한 지구사회'를 구축하기 위해 세가지 각도에서 제안하겠습니다.

첫째, 교육과 청년에 관한 것입니다.

전반부에서 역사가 토인비 박사가 "우리 자신이 노력해 우리 때에 전례 없는 어떤 새로운 변화를 역사에 남기는 길이 우리에게 열려 있다."고 한 말을 근거로 민중에 의한 민중을 위한 가치창조의 도전을 논했는데 그 힘을 이끌어내는 임파워먼트의 원천은 교육뿐입니다.

돌이켜보면 신념의 투쟁을 관철하고 출옥한 만델라 씨와 처음 만나 대화했을 때(1990년 10월), 새로운 시대를 건설하는 데 가장 중요한 주제가 교육이고 청년 육성이었습니다.

교육이 신생 남아공을 건설하는 기초가 된다는 신념을 지닌 만델라 씨에게 “100년, 200년 뒤의 미래를 전망할 때, 국가 발전 요인을 어디서 찾아야 하는가. 그것은 ‘교육’에 있습니다.” 하고 강하게 공감한 일이 그립게 떠오릅니다.

우리는 대화하면서 ‘교육이 바로 인간의 존엄을 비추는 광원’이라는 신념을 더 강하게 확신하였는데 그런 교육은 한 나라에 국한하지 않고 인류 전체의 미래의 운명을 쥐고 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닙니다.

만델라 씨가 1만일에 이르는 옥중 투쟁을 이겨낼 수 있었던 까닭도 끊임없이 자신에게 ‘교육의 숨결’을 불어넣고 은혜와 원한을 뛰어넘어 평화와 공생의 사회를 구축하겠다는 꿈을 크게 키웠기 때문입니다.

“단단한 벽에 갇혀 있는 것은 내 삶과 뼈뿐입니다. 내 삶과 뼈는 갇혀 있어도 나는 여전히 세계 주의적 시각으로 전 세계를 내다보며, 생각은 송골매만큼이나 자유롭습니다. 내 모든 꿈의 정신적 지주는 인류 전체의 집단적 지혜입니다.”

이 말처럼 만델라 씨는 정신의 날개를 펼쳐 그리스 고전극을 읽고, 역경에 굴하지 않는 마음을 고무하거나 동료 죄수와 감옥에서 ‘대학’을 열어 이상적인 미래를 만들 힘을 기르기를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세계에서 지금 위협에 맞닥뜨려 심각한 괴로움을 안고 있는 사람들, 사회를 어떻게 해서라도 좋은 방향으로 바꾸고 싶어 하는 사람들 그리고 앞으로 미래를 짊어질 젊은 세대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이 ‘불굴의 희망’과 ‘인류의 지혜에서 배우는 정신성’이 뒷받침된 가치창조의 힘을 기르는 교육이 아닐까요.

30여년 동안 유엔 활동 지원

지난해 9월 유엔에서 ‘새천년 개발목표에 관한 특별행사’가 열려 새천년 개발목표에 이은 새로운 국제 공통목표⁴를 제정하고자 올해 9월부터 정부간 교섭을 시작하고 내년 9월에 있을 정상회담에

⁴ 새로운 국제 공통목표

유엔이 2015년을 목표로 추진해온 새천년 개발목표에 이은 구상으로 ‘포스트 2015 개발 어젠다’라고 부른다. 현재 이 새로운 구상을 검토하면서 ‘지속가능한 발전목표’의 내용도 검토하고 있는

서 채택한다는 일정을 결정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새로운 국제 공통목표의 대상분야로서 자원순환사회를 추구하거나 방재와 재해의 감소를 비롯해 인권, 인간의 안전보장, 군축 등을 내걸자고 주장했는데 이번에는 그 목록에 '교육'을 더해 제안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교육 분야에서 '초중등교육의 완전 보급'이나 '모든 교육차원에서 남녀 격차 해소'와 더불어 '세계시민교육 추진'이라는 세 항목을 공통목표에 포함하자고 제창합니다.

그리고 특히 셋째 항목을 궤도에 올리고자 올해로 끝나는 '유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교육(ESD) 10년'에 이어지는 구상으로 '세계시민교육 프로그램'을 새롭게 마련해 유엔과 시민사회의 협동 프로젝트로서 추진하자고 주장합니다.

'세계시민교육'의 중요성은 40여년 전에 토인비 박사와 나눈 대담 이후, 각국 지도자 그리고 지성인과 지속적으로 대화하면서 제가 일관해서 강조한 주제입니다. 1987년에 발표한 제언에서는 구체적인 구상으로 환경, 개발, 평화, 인권이라는 네 가지 분야를 축으로 인류적 가치를 추구하는 '세계시민교육'을 추진하자고 제창했습니다.

이 구상은 국제창가학회(SGI)가 1982년 뉴욕의 유엔본부에서 '핵무기-현대세계의 위협'전을 연 뒤로, 유엔의 세계군축캠페인의 일환으로서 각국을 순회하며 전시하던 중에 '지구적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교육이 불가결한 요소가 된다'는 수년 동안 품어온 신념을 더한층 심화해서 제안했습니다.

그 뒤에도 1989년부터 '전쟁과 평화'전을 열고, 1995년에 시작한 '유엔 인권교육의 10년'이나 2000년 이후의 '평화의 문화'에 관한 일련의 유엔 활동을 시민사회의 차원에서 지원하고자 '현대세계의 인권전' '세계 어린이들을 위한 평화의 문화 건설전' 등을 열어 풀뿌리 의식을 계발하는 데 온 힘을 기울였습니다.

또 다른 비정부기구(NGO)와 협력해 'ESD 10년' 제정과 인권교육의 국제적 구상을 이어가자고 주장하며, 2005년에 'ESD 10년'과 '인권교육을 위한 세계 프로그램'을 시작하고부터는 이 유엔의 두 가지 구상을 지원하는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왔습니다.

그 외에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인간의 행동규범과 가치를 명시한 '지구헌장'의 제정작업을 지원하고 그 정신을 보급하는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데 최종적으로는 이 두 가지 흐름을 통합해 단일 공통목표를 제정할 전망이다.

이러한 30여년의 활동으로 여러 분야에서 밀접하게 연계하고 협력한 NGO와 함께 2년 전 리우+20(유엔지속가능발전회의)에서는 공식 관련행사로 '우리가 창조하는 미래'라는 제목으로 원탁회의를 열었습니다. 2월에는 뉴욕에서 '세계시민과 유엔의 미래'라는 주제로 원탁회의를 열 예정입니다.

리우에서 연 원탁회의에서 표면화한 것은 교육이 문제를 깊이 이해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한사람 한사람이 내면에 갖춘 무한한 힘을 깨닫는 '임파워먼트'의 촉매가 되고, 시대를 변혁하고자 용감하게 행동하는 '리더십 발휘'의 요람이 되도록, 교육을 일련의 과정으로 추구해야 하는 중요성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까지 이룬 유엔 활동의 성과를 바탕으로, 다음 단계로서 '한사람 한사람의 임파워먼트'에서 '모든 사람이 참여하는 가치창조의 도전'까지 그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는 새로운 교육을 구상해야 하지 않을까요.

타국의 희생 위에 번영을 추구하지 않는다

여기서 '세계시민교육 프로그램'의 골격으로 삼았으면 하는 세가지 관점을 제안하겠습니다.

첫째, 인류가 맞닥뜨린 다양한 문제를 깊이 이해하고 그 원인을 사색하는 과정에서 '어떤 어려운 문제라도 인간이 일으킨 이상 반드시 해결할 수 있다.'는 희망을 서로 공유하기 위한 교육.

둘째, 세계적 위기가 악화되기 전에 그 징후가 나타나기 쉬운, 자신이 있는 지역에서 그 의미를 민감하게 포착해 행동을 일으키기 위한 힘을 임파워먼트로 끌어내면서, 사람들과 연대해 문제를 해결하도록 촉구하는 교육.

셋째, 다른 사람들의 괴로움을 헤아리는 상상력과 동고의 정신을 기르면서, 자국에 이익이 되는 행동이라도 다른 나라에 악영향이나 위협을 줄 우려가 있다는 점을 늘 잊지 말고, '타국 사람들의 희생 위에 자국의 행복과 번영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점을 공통의 맹세로 서로 고양하기 위한 교육.

이상 세가지 관점을 제안했는데, 이런 점을 가미한 '세계시민교육'을 각국의 중등교육이나 고등교육 과정에 넣고 시민사회가 주체가 되어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다양한 기회를 이용해 추진해야 하지 않을까요.

유엔의 반기문(潘基文) 사무총장도 2년 전에 교육을 국제사회의 최우선 과제로 하는 '글로벌교육 우선구상'을 주창하고 그 구상 중 하나로 지구시민의 육성을 내세웠습니다. 이처럼 유엔에서 지구적 의식의 함양을 중요하게 여기는 움직임이 보여 정말 마음이 든든합니다.

11월에 나고야시에서 열리는 'ESD에 관한 유네스코 세계회의'에서도 이 지구시민 교육에 대한 ESD의 공헌과 앞으로 실행할 안건을 협의할 예정이기에 이번 회의 성과 등을 바탕으로 '세계시민 교육 프로그램'을 제정해야 합니다.

젊은이들을 둘러싼 고용환경 개선을

이어서 이 교육과 함께 새로운 공통목표의 대상에 '청년'을 포함하자고 제창하겠습니다.

세계 인구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청년은 공통목표의 영향을 가장 강하게 받는 세대이면서 그 공통목표를 달성하는 데 가장 영향력 있는 존재입니다. 따라서 세계의 청년이 더 나은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가치창조에 적극적으로 도전할 수 있는 길을 공통목표에 넣는 의의는 매우 크지 않을 까요.

구체적으로는 ①'일다운 일(Decent work: 일할 보람이 있는 인간다운 일)'을 확보하고자 각국이 온 힘을 다할 것 ②사회가 맞닥뜨린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청년의 적극적인 참여'를 꾀할 것 ③국경을 초월한 우정과 행동의 연대를 키우는 청년교류를 확대할 것을 목표로 설정하자고 제안합니다.

세계에서는 현재 실업자가 약 2억 200만명에 이르고 약 9억명이 직업이 있어도 하루 일당이 2달러의 빈곤선을 웃도는 수입을 얻지 못한다고 추정합니다.

특히 젊은이를 둘러싼 상황은 좋지 않아서 일정한 직업이 없는 상황이 계속되거나 일이 있어도 저임금과 열악한 직장환경, 불안정한 고용형태 그리고 남녀간의 대우 격차에 고통받는 상황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상황이 길어지면 많은 젊은이의 존엄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미래를 향한 희망과 살아갈 힘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국제노동기관도 '일다운 일'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라고 각국에 외치지만, 그것을 명확하게 공통목표로 내걸고 본격적으로 상황을 개선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인 청년이 문제해결에 참여하는 일은 장래의 세계를 생각할 때 절대 빠뜨릴 수 없는 요소로, 지난해 9월에 코스타리카에서 연 '글로벌 유스 서밋' 선언에서도 청년들의 요청으로 강조했습니다.

그것은 저도 2006년에 유엔제언 등에서 주장하였으며, 유엔이 그 일환으로서 지난해 8월에 청년을 위한 유엔 온라인 플랫폼을 개설했는데 매우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각국에서도 청년의 소리를 반영하는 제도적 장치를 정비하도록 더욱더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요.

세 번째인 청년 교류의 확대는 학생 중심으로 진행하던 각종 교류를 더욱 폭넓게 일반 청년으로 넓혀 정착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합의해 공통목표로 내걸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제안했습니다.

청년 교류의 확대는 상호 이해를 심화하거나 관심을 유지하는 데 의의가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교류로 맺은 우정이나 마음의 유대는 증오나 편견에서 오는 선동이나 집단심리에 휩쓸리지 않는 '방파제'가 됩니다.

어느 나라든 군사력에 의존하는 체제와 배타적인 정치에 제동을 걸고 평화롭고 인도적인 사회를 구축하려면 '타국 사람들의 희생 위에 자국의 행복과 번영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세계시민 의식을 지닌 사람들, 특히 청년 세대의 저변을 넓혀야만 합니다.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고 같은 시간을 보내면서 키운 우정은 각 나라에서 차대를 짊어질 청년들의 마음에 '부전(不戰)의 맹세'를 하나 또 하나 불붙이고 '지구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행동의 연대'라는 결실을 가져오는, 인류에게 최고의 보배입니다.

창가학회도 올해부터 사회가 부딪친 문제를 청년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행동하는 청년의 연대를 넓히는 데 그 목적을 둔 '소카 글로벌 액션'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다른 NGO나 여러 단체와 협력하면서 청년이 문제해결에 앞장서 행동하는 시대를 힘차게 열고자 합니다.

지역 전체에 '리질리언스'를 강화한다

다음은 재해나 이상기후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국제협력을 제안하겠습니다.

지난해 세계기상기구(WMO)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1세기가 시작되고 나서 10년 동안(2001년~2010년) 허리케인 카트리나와 파키스탄에서 일어난 홍수 그리고 아마존강 유역에 닥친 가뭄 등, 각지에서 이상기후가 발생해 희생자가 37만명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이상기후는 2010년 이후에도 자주 발생하는데, 지난해만 해도 태풍 30호가 필리핀과 베트남에 심각한 피해를 주었고, 유럽 중부와 인도 등은 큰비로 홍수 피해를 입었고, 북반구의 대부분 지역에 기록적인 폭염이 덮쳤습니다.

또 기후변동은 이러한 직접적인 피해 이외에도 사람들의 생활 기반인 농업, 어업, 임업 등에 심각한 영향을 미쳐 세계 전체의 경제적 손실액이 연간 2000억달러에 이릅니다.

그 때문에 지구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한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총회(COP)도 이산화탄소 등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는 별도로 손실과 피해에 대한 대응이 의제로 떠오르면서 지난해 11월에 연 제19회 COP에서는 기후변동에 따른 손실과 피해에 관한 '바르샤바 국제 메커니즘'을 설립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도 선진국에 개발도상국의 자금 원조를 요청할 뿐 구속력은 없으며, 메커니즘을 재검토할 기회도 2016년으로 미루어지는 등, 기후변동의 악영향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의 상황을 개선하는 데로는 이어지지 않을 우려가 있습니다.

국제연합대학교의 '환경과 인간의 안전보장연구소'는 "현행(現行) 수준의 적응책이나 완화책으로는 여러 기후 스트레스에서 오는 부정적인 영향을 피하기 어렵다."고 경종을 울렸는데, 뭔가 새로운 방안을 찾아내 시급히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여기서 UNFCCC에 따른 지구적 규모의 대응책과 함께 아시아와 아프리카를 비롯한 각 지역에서 재해나 이상기후에 따른 피해를 줄이고 부흥을 이룰 '리질리언스'의 힘을 강화하는 협력 체제를 정비해야 합니다.

재해나 이상기후에 대한 대응은 '사전 대비' '재해 발생 시 구호' '복구와 부흥'의 세 기둥으로 이루어지는데, 이 중에서 재해 발생 시 구호는 각국에서 지원을 보내는 경우가 적지 않지만 나머지 두 분야는 더욱 국제 협력을 확충해야 합니다. 아무리 긴급히 지원한다 해도, 그 뒤에 한 나라의 힘만으로 부흥을 이루고 재해 대비를 강화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따른다는 것은 각지의 사례를 보아도 알 수 있기에, 교훈을 공유하면서 서둘러 서로 돕는 제도를 마련해야 하겠습니다.

현재 분쟁은 유엔평화구축위원회 등에서 분쟁 예방, 분쟁 해결, 평화 구축을 일련의 과정으로 전

개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재해나 이상기후도 '사전 대비'나 '재해 발생 시 구호'에서 '복구와 부흥'에 이르기까지 이웃 여러 나라 사이에 일관된 협력 체제를 구축해야 합니다.

기후변동에 위협 느끼는 나라 증가

어째서 이웃 나라끼리의 관계를 기반으로 대응해야 할까요.

왜냐하면 '사전 대비'와 '복구와 부흥'은 재해 발생 직후의 지원과 달리 장기간 협력이 필요한 만큼 이웃 나라끼리의 협력이 어렵지 않을 뿐더러, 지리적으로 가까운 관계이기에 자국에 언제 덮쳐올지 모르는 이상기후에 관련된 교훈이나 대비를 공유하는 일이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것만으로도 커다란 의의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웃 나라들 사이에서 이러한 재해나 이상기후에 대한 협력체계가 궤도에 오른다면, 지역 전체에 그보다 더 헤아릴 수 없는 가치를 가져올 가능성이 잠재해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이웃 나라 사이의 안전보장 형태를 바꿀 가능성입니다.

지난해 3월, 한국 서울에서 아시아태평양지역 기후안보회의를 열었는데, 거기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적어도 110개국이 기후변동 문제를 '안전보장상의 위협'으로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많은 나라가 기후변동을 '환경문제의 하나'로 받아들이고 경제성장과 비교해 우선순위를 낮게 두었는데, 요 몇 해 사이에 인식이 바뀌어 '안전보장상의 위협'으로 받아들이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하는 나라들이 늘었습니다.

특필할 만한 점은, 이러한 면의 안전보장을 높이는 일은 군사력을 강화하는 경우에 생기는 '안전보장의 딜레마' 즉 한 나라가 군비를 증강하면 다른 나라도 위협을 느껴 대응 조치를 취하는 것처럼, 군비확장이 더 큰 군비 확장을 불러일으켜 오히려 불안이나 긴장이 커지는, 이러한 부정적 연쇄효과에 빠질 우려가 없다는 점입니다.

게다가 재해나 이상기후는 언제 어느 나라에 닥칠지 모르는 특성이 있기에 재해를 입은 직후에 많은 나라가 구호하러 달려가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재해를 입으면 피차일반'이라는 나라와 나라

사이의 장벽을 넘은 '동고'와 '연대'의 지평을 반드시 열어줄 것입니다.

이것은 3년 전에 크라이스트처치 지진으로 타격을 입은 뉴질랜드의 평화학자 클레멘츠 박사와 동 일본대지진을 당한 일본에 사는 제가 대담한 이야기인데,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재해가 일어났을 때, 국제 협력과 지원 태세가 대규모로 갖추어지는 것을 보고 매우 마음이 든든했습니다. 그 자체가 우리는 누구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문화나 언어, 국적은 달라도 모두 같은 인간'이라고 느끼고 있다는 점을 말해줍니다. 위기적인 상황에서만 그것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 아쉽지만,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에도 재해 때와 같은 '상호부조(相互扶助) 정신'을 유지해야 합니다.”

완전히 동감합니다. 그를 위해 리질리언스를 강화하거나 복구를 지원하는 면에서 이웃 나라끼리 오랫동안 협력을 쌓아가면서 '서로 돕고 지지하는 정신'을 지역의 공통 문화로 함양해야 하지 않을까요.

정보를 지구 공공재산으로 공유

실제로 이 분야에서 필요한 지식이나 정보 그리고 기술이나 노하우는 종래의 군사적 안전보장에서 우선시한 정보 보전과는 달리 각국이 서로 공유해야만 더 큰 가치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정보나 기술을 공유하는 나라가 늘어날수록 각국에서 피해를 최소화하는 길이 열리고 지역 전체의 재해 위험성(안전보장의 위협)이 줄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경제학자 조지프 스티글리츠 박사가 미국의 토머스 제퍼슨 제3대 대통령이 “내 촛불에서 누군가 불을 붙여가도 내 촛불이 약해지지 않는 것같이 누군가는 내게서 아이디어를 얻겠지만 내 아이디어가 줄어들지는 않는다.”고 한 말에서 개념의 윤곽을 그린 '지구 공공재산인 지식'에 해당하겠지요.

재해에 관한 리질리언스는 완강성(頑強性, 사회적 기능이 쉽게 손상되지 않는다), 대리기능성(代理機能性, 예측할 수 없는 사태에 대체 수단으로 대응할 수 있다), 기전성(機轉性, 재기하기 위한 사회적 지구력과 지혜를 갖춘다), 신속성(迅速性, 심각한 영향이 확산되기 전에 복구 방안을 찾는다)의 네 항목으로 구성되는데, 모두 제퍼슨이 말한 “내게서 아이디어를 얻겠지만 내 아이디어가 줄어들지는 않는다.”는 성질과 같은 것입니다.

나는 재해에 따른 피해가 가장 심각한 아시아 지역이 가장 먼저 이 지역간 협력에 착수해 세계의 다른 지역에도 '리질리언스 강화와 복구를 지원하기 위한 협력의 연대'를 넓히는 흐름을 만들기를 주장합니다.

그 기반은 이미 존재합니다.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의 나라들을 포함해 한국과 북한, 중국 그리고 일본 등이 참가하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⁵이 안전보장에 관한 우선 과제 중 하나로 '재해구호'를 내걸고 협력 체계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틀을 이미 만들었습니다.

주목할 점은 ARF 활동의 일환으로 '재해 발생 시 구호'를 주제로 하는 다국적 재난구호훈련을 지금까지 세 번 실시하여 민군으로 이루어진 의료부대나 방역부대, 급수(정수)부대 등도 참가해 합동훈련을 한 일입니다.

저는 이 재난구호훈련에서, 마키구치 초대 회장이 20세기 초(1903년)에 쓴 '인생지리학'에서 제창한 배타적인 군사 경쟁을 인도적(人道的)인 방향으로 전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싹트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키구치 회장은 제국주의나 식민지주의가 설치던 시대에 각국 경쟁의 주축이 군사 경쟁에서 정치 경쟁, 나아가서는 경제 경쟁으로 변천할 것이라고 지적하며 이러한 '타인의 희생 위에 자신의 번영을 추구'하는 경쟁에서 벗어나, 국가의 목적을 '인도적 경쟁'으로 방향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그 도전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군사와 정치 그리고 경제면의 경쟁을 질적으로 전환하도록 즉 '타인을 위하고, 타인을 이익케 하면서 자신도 이익이 되는 방법'을 선택해 '공동생활을 의식적으로 행하는 길'을 걷도록 경쟁의 무게중심을 옮겨야 한다고 외쳤습니다.

자치단체가 서로 교류해 방재력을 높이다

이것을 주장한 지 1세기 이상이 지났는데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이 '재해구호' 협력을 강화하고

⁵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아시아 태평양 지역 안전보장 환경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정부간의 포럼이다. 1994년에 제1회 고위관료회의를 연 이래, 신뢰 조성의 촉진과 예방외교가 진전되었다. 미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26개국과 유럽연합(EU)이 참가해 재해 구호와 같은 비전통적인 안전보장 분야의 연계에도 힘을 쏟고 있다.

자 시작한 재난구호훈련을, 마키구치 회장이 말한 '목적은 이기주의에만 두지 않고 자신과 함께 타인의 생활도 보호하고 증진시키려 한다.'는 인도적 관점에서 군사 경쟁의 질적 전환을 각국에 촉구하는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재해구호'에 지속적으로 협력하면서 국가 상호간의 불신과 앙금을 풀고 '복구와 부흥'의 과정까지 협력체제를 지속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리고 '사전 대비' 차원에서의 리질리언스 강화는 지방자치단체 간 자매결연을 통해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는 관계에서 협력하는 형태가 각국에 정착하도록 대책을 추진하면 어떻겠습니까.

저는 그 대책을 궤도에 올리는 구체적인 방안으로서 ARF의 실적 등을 토대로 '아시아 부흥 리질리언스 협정' 체결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아시아 지역의 선행 모델을 구축하려면 일본과 중국 그리고 한국이 지방자치단체 간 자매결연을 중심으로 한 리질리언스 강화에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제창합니다.

현재 한국과 일본 사이에는 151개, 한국과 중국 사이에는 149개, 중국과 일본 사이에는 354개 도시가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1999년부터는 해마다 한중일 세 나라에서 '지방정부교류회의'도 열어 교류 촉진을 도모해왔습니다.

이러한 기반 위에 각 자치단체의 청년이 중심이 되어 방재나 재해 감소를 포함한 리질리언스를 강화하기 위한 교류를 추진해 '우호와 신뢰의 유대'를 견고히 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치단체 간의 교류라는, 점과 점을 잇고 국가의 울타리를 넘어 '행동의 연대'라는 선을 겹겹이 그리면서 '평화적 공존'이라는 면을 지역 전체에 부상시켜야 하겠습니다.

이웃 나라와 성실하게 우호를 구축하려는 노력 없이는 세계평화를 아무리 전망해도 화룡점정을 빠뜨리는 일이 되고 맙니다. 재해 때 동병상련으로 지원했던 것처럼 이웃 나라 관계에서도 그러한 정신을 초석으로 삼아야 합니다.

아시아뿐 아니라 세계에 새로운 가치창조의 기운을 불어넣는 이 도전에 착수함은 물론, '한중일 정상회담'을 열어 지난해에 제언한 환경문제에 대한 협력도 포함해 대화를 촉진하기를 강하게 바랍니다.

그리고 내년 3월에 센다이에서 여는 '제3회 유엔방재세계회의'를 계기로, 어떤 협력을 구체적으로 추진할지 본격적으로 협의하자고 주장합니다.

일본을 포함한 125개국 이 공동성명으로 찬동

마지막으로 핵무기 금지와 폐기를 제안합니다.

앞서 논한 지진이나 해일 등의 재해는 사전 대비로 피해를 줄일 수 있지만 발생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재해 이상으로 돌이킬 수 없는 참극을 불러오는 핵무기의 위협은 대다수 나라의 명확한 정치적 의사를 결집할 수만 있다면 막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없앨 수도 있습니다.

지난해 8월, 시리아에서 화학무기를 사용하여 많은 시민이 희생되자 국제사회에서 비난이 강하게 일었습니다.

이 시리아에서 일어난 사태로 유엔의 안전보장이사회도 “시리아의 어떠한 주체도 화학무기를 사용, 개발, 생산, 취득, 저장, 보유 또는 이전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화학무기를 신속히 폐기 하라고 요구하는 결의를 채택했습니다.

화학무기를 현실에서 사용하여 그 비인도성이 다시 부각되면서 안전보장이사회가 ‘누구든 보유도 사용도 허용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엄격하게 밝혔습니다. 그러나 대량파괴무기 중 최고인 핵무기에는 똑같은 원칙을 아직 적용하지 않은 것은 분명히 이상하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제사법재판소가 1996년에 표명한 권고적 의견에 ‘핵무기의 파괴력은 공간적으로도 시간적으로도 가둘 수 없다. 핵무기는 모든 문명과 지구 상의 생태계 전체를 파괴하는 잠재력을 지녔다’고 경고했듯이, 핵무기가 불러올 괴멸적인 인도적 결과는 화학무기와 도저히 비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괴멸적인 인도적 결과를 정면으로 바라보며 핵무기 문제를 논하는 일은 안전보장의 논리를 최우선으로 하는 국제정치에 가려 오랫동안 외면되었지만, 2010년에 열린 핵확산금지조약(NPT) 재검토회의의 최종문서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부터 새로운 움직임이 국제사회에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지난해 3월,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연 국제회의는 약 70년에 이르는 핵시대에 인도적 영향의 관점에서 핵무기 문제를 다시 인식할 목적으로 연 첫 회의였습니다.

거기서 과학적 견지를 바탕으로 검증한 결과 회의에 참석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어느 국가도, 어느 국제기관도 핵폭발로 일어난 직접적인 인도적 비상사태에 적절하게 대처하고 재해자를 구호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인식하였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이 검증 등을 순풍으로 삼아 핵군축과 비확산을 둘러싼 모든 협의에 '핵무기의 인도적 영향'을 중심에 두고 생각하자는 국가들이 서서히 늘고 있습니다.

2012년 5월 이후 핵무기의 인도적 영향에 관련 있는 공동성명을 잇따라 발표하면서 4회째를 맞은 지난해 10월의 성명 때에는 찬동하는 나라가 '핵우산' 아래 있는 일본 등을 포함해 125개국까지 확대되었습니다.

그 배경에는 '핵무기가 불러올 참극을 누구에게도 맛보게 하면 안 된다'고 끊임없이 외쳐온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피폭자를 비롯해 핵무기 폐기를 바라는 사람들의 강한 지지가 있었기 때문인데, 유엔 가맹국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국가들이 '어떠한 경우에도' 하며 일체 예외를 인정하지 않고 핵무기 사용이 괴멸적인 인도적 결과를 불러오고 인류의 이익에 위배한다는 사실을 확인한 일은 중요한 의미가 있겠습니다.

레이카비크에서 열린 미소정상회담

역사를 돌이켜보면, 1986년 아이슬란드 레이카비크에서 연 미소정상회담 때 레이건 대통령과 고르바초프 서기장이 '핵무기 전폐'를 합의하고자 흥금을 터놓고 대화한 배경도 핵전쟁이 불러올 괴멸적인 결과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고르바초프 씨는 회담이 있기 반년 전에 체르노빌에서 일어난 원전사고 당시를 회상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체르노빌이 없었다면 레이카비크는 없었다. 그리고 레이카비크가 없었다면 핵군축은 추진하지 않았을 것이다.”

“원자로(原子爐) 한 개에서 유출된 방사능조차 충분히 대응할 수 없었는데 소련 전체나 미국, 일본에서 핵폭발이 잇따라 일어난다면 어떻게 될까. 방사능 오염에 대한 대응 등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 이미 끝장이다.”

이때 미국의 전략방위구상(SDI)을 둘러싼 의견대립이 해소되지 않아 '핵무기 전폐'는 합의 직전에 물거품으로 끝나버렸지만 '우리 자손을 이런 무서운 무기에서 벗어나게 하고 싶다'는 마음을 품고 있던 레이건 대통령이 고르바초프 서기장과 이듬해 1987년에 중거리핵전력협정(INF)이라는 미소간의 첫 핵군축조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25년이 지난 지금 인류를 둘러싼 상황은 어떻게 바뀌었는가.

그것은 지난해 6월,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베를린에서 “우리는 이제 세계적인 절멸(絶滅) 위기에 놓여 있지 않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핵무기가 존재하는 한 우리는 결코 안전하지 않습니다.”라고 한 연설이 말해줍니다.

왜냐하면 우발적인 사고나 잘못된 정보에 근거를 둔 핵공격 또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핵테러리즘으로 괴멸적인 인도적 결과를 불러올 가능성은 늘 존재하며, 핵무기를 보유하는 나라가 늘어난 만큼 위험성도 커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는 냉전 시대와 현재를 비교해 결정적인 차이와 부동의 공통점이 있다는 점에 주목하면 ‘핵무기 없는 세계’를 향한 새로운 지평이 떠오르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제기합니다.

먼저 결정적인 차이는 핵보유국이 서로 핵공격을 단행해 철저히 항전하리라는 냉전시대에 우려하던 사태가 실제로는 생각할 수 없게 된 점과 테러를 비롯한 오늘날의 위협에 대응하지 못한다는 관점에서 군사적 유용성의 인식에 변화가 보인다는 점입니다.

즉 ‘심각한 대립’이 존재하기에 위험했던 시대에서 심각한 대립이 빠지고 ‘핵무기가 계속 존재’하기에 위험하다고 하는 시대로 바뀌었다는 말입니다.

냉전시대에는 ‘진퇴양난의 대립’이 서로의 위기의식을 높이고 핵억지정책으로 핵무기가 서로 끊임 없이 충돌하는 대치상태를 불러왔지만, 현재는 ‘세계에 핵무기가 존재하는 상황’을 늘 불안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보유하기를 바라는 새로운 국가가 나오거나 어느 핵보유국이나 핵무기를 포기하지 못하는 심리가 작용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2008년에 세계경제위기가 발생하고 나서 어느 나라나 심각한 재정문제에 맞닥뜨렸으나 군사적 유용성이 낮아지지만 하는 핵무기를 보유하고자 모든 보유국이 해마다 1000억 달러나 낭비하는 사실에, 핵무기는 ‘나라의 위신을 높이는 자산’이라기보다 ‘나라의 재정을 기울게 하는 무거운 짐’이 되고 있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비추어 볼 때 핵보유국은 핵무기의 존재가 불러올 위협을 해소하고자 행동해야 하지 않을까요.

핵무기의 본질을 들추어낸 도다 제2대 회장

그리고 또 하나의 열쇠가 되는 확고부동한 공통점은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폭을 투하한 이후 68년 동안 어느 나라도, 어느 지도자도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 점은 냉전 종결 전이나 종결 후에도 변함없습니다.

이 점을 생각하니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폭 투하를 결단한 트루먼 대통령이 그로부터 3년 뒤인 1948년에 핵보유국의 지도자로서 자계(自戒)한 말이 떠오릅니다.

“이것은 군사적인 무기가 아니라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여성과 아이 그리고 무장하지 않은 사람들을 전멸하려고 사용한 무기이지, 군사적인 무기는 아니다. 소총과 대포 같은 일반 무기와 다르게 취급해야 한다.”

이듬해인 1949년, 소련이 미국에 이어 핵실험에 성공했습니다. 이후 핵역지론이 세계를 뒤덮으면서 지금에 이르렀지만, 많은 지도자가 핵단추를 책임지면서 ‘군사적인 무기’도 아니고, ‘일반 무기’와도 다르게 취급해야 한다’는 핵무기의 성질을 어느새 알게 되었고 이 점이 ‘핵비사용을 결정하는 쐐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움직임으로 지난해 유엔총회의 결의에 바탕을 두고 다국간 핵군축교섭을 실현하고자 오픈 참가국 워킹그룹을 설치하여 회의를 열었는데, 이 결의를 주도한 오스트리아는 6월에 제출한 문서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핵무기 없는 세계를 달성하고 유지한다는 보편적인 목표에서는 모든 국가가 일치한다. 그러나 핵무기 폐기를 뒤집을 수 없는 가장 효과적인 길에 관한 공통 인식은 없다. 이 인식의 틈에 다리를 놓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저는 핵무기의 인도적 영향에 관한 공동성명에 바탕을 둔 연대와 트루먼 대통령이 자계한 말에서 발단이 된 ‘일반 무기와 다른 핵무기의 성질’을 느끼면서도 안전보장 상의 관점에서 유지해온 지도자 사이에 놓인 다리는 ‘누구도 핵무기가 불러올 괴멸적인 인도적 결과를 바라지 않는’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핵개발경쟁이 격화되던 1957년 9월에 ‘원수폭금지선언’을 발표해 세계 민중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핵무기의 본질을 들추어낸 스승 도다 제2대 회장은 그 선언에 앞서 “세계든 국가든 개인이든 ‘비참’이라는 글자를 쓰게 하고 싶지 않다.” 하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말한 공동성명에서 핵무기 사용에 관해 내건 ‘어떠한 경우에도’라는 말에 대해 안전보장에 필요한 군사 옵션이 제약받는 것은 아닌지 하고 가장 먼저 우려하는 지도자도 적지 않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말을 ‘어떠한 사람에게도’ 하고 괴멸적인 인도적 결과를 당하는 한사람 한사람의

처지로 바꿔 놓고 보면 핵무기 사용을 정당화할 수 있는 예외적인 사유를 과연 용인할 수 있을까요.

핵무기가 '무장하지 않은 사람들을 전멸시킨다'는 레드 라인(넘어서는 안 되는 하나의 선)을 넘어 불러올 괴멸적인 인도적 결과는, 세계 민중의 생존권을 근본부터 위협하는 것이라고 도다 제2대 회장이 지탄한 것처럼 '어떤 나라든' '누구든' 받아들일 수 없다는 생각을 공유하는 것이 안전보장상의 이유로 핵무기 사용을 용인하는 사상을 극복하는 열쇠가 됩니다.

비사용협정에 일본은 적극 공헌을

이전부터 저는 원자폭탄이 투하된 지 70년이 되는 내년에 '핵폐기서밋'을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서 열자고 제창했는데, 이 서밋은 국가나 처지에 상관없이 '핵무기 없는 세계'를 바라는 사람들이 모여 같은 지구에 사는 인간으로서 행동을 서로 맹세하는 마당으로 삼아야 하지 않을까요.

구체적으로는 앞서 말한 공동성명에 찬동하는 국가들과 NGO 대표를 비롯해 핵보유국을 포함한 각국의 청년들을 참석자의 주축으로 삼아 '세계청년핵폐기 서밋'을 열고, 청년이 중심이 되어 핵시대에 종지부를 찍겠다고 맹세하는 선언을 정리하고, 선언 채택을 계기로 새로운 행동을 일으키자고 주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개최에 덧붙여 구체적인 과제로 두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 번째 제안은 내년 NPT 재검토회의에서 '핵무기의 괴멸적인 인도적 결과'를 중심 의제 중 하나로 상정해, 핵군축을 성실하게 추구하기로 정한 NPT 제6조의 이행을 확보하는 조치로서 '핵무기 비사용협정'을 제정하기 위한 협의 절차를 밟자는 것입니다.

무릇 NPT의 무기한 연장을 1995년에 결정하면서 핵보유국이 비보유국에 핵공격을 가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소극적 안전보장'을 법적 구속력이 있는 문서로 제정하는 일이 커다란 과제가 되었습니다.

저는 핵보유국이 NPT 가맹국에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NPT의 기본정신에 뿌리내린 의무'로서 준수해야 하는 협정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비사용협정'은 핵무기의 존재가 각 지역에 가져오는 불안정 요인을 대폭 제거하고, 핵무기의 역

할을 축소하는 길을 현실에 여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2010년에 연 NPT 재검토회의에서 채택한 최종문서에는 핵보유국이 신속하게 이행해야 할 조치를 열거했는데, 올해의 준비위원회에서 '이행상황을 보고할 것' 그리고 내년의 재검토회의에서 'NPT 제6조의 완전이행을 위한 다음 조치를 검토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 하나가 핵무기의 역할 축소로,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5개국 사이에서도 '핵무기 비사용 협정'의 성립을 강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 일본에서 여는 G8 정상회의에 맞춰 '핵무기 없는 세계를 위한 확대 정상회담'을 실시해 조기에 이 협정에 조인할 것을 주장합니다.

이미 2년 전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에서 '핵무기 사용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은 극히 드물다'는 인식이 NATO 가맹국의 일치된 견해입니다. 핵보유국은 지금이야말로 NPT의 서약을 완수하겠다는 정치적 의사를 밝히고 그것을 협정으로 결실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 핵무기로 핵무기 확대를 억지한다는 전략에서 냉전 시대에 영국 국방부 장관을 지낸 데니스 힐리가 제기한 법칙을 엿볼 수 있습니다.

힐리에 따르면 러시아의 핵공격을 억지하려면 미국이 보복할 확률이 '5퍼센트'만 되어도 충분하지만, '핵우산' 아래 있는 유럽 여러 나라를 안심시키려면 미국이 보복할 확률이 '95퍼센트'나 필요해 집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핵우산'에 의존해온 나라들의 방침이 현행의 과도한 핵군비를 유지하는 요인이 되어왔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비사용협정'을 이루어 '핵우산' 아래 있는 나라들도 새로운 안심과 안전 조치를 확보할 수 있다면 자국에도 타국에도 괴멸적인 인도적 결과를 초래하는 핵무기에 안전보장을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길이 열리고, 틀림없이 핵무기의 역할을 축소할 전제 조건이 갖추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비사용협정'을 돌파구로, 동북아시아와 중동 등 비핵무기지대가 실현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그 전(前) 단계가 되는 '핵비사용지대' 설치를 목표로 노력해야 합니다.

'핵우산' 아래 있으면서 공동성명에 찬동한 일본은 피폭국 당사자라는 원점으로 되돌아가 '비사용협정' 성립과 더불어 '핵비사용지대' 설치를 위해 적극적으로 공헌하기를 강하게 바랍니다.

우려를 해소할 제도적 보장이 중요

두 번째 제안은 이러한 NPT에 바탕을 둔 방안과 함께 핵무기의 인도적 영향에 관한 공동성명 추진 등을 축으로 국제 여론을 폭넓게 불러일으키고 핵무기 전면금지를 목표로 조약의 교섭을 시작 하자는 것입니다.

저는 2년 전에 발표한 제언에서 조약과 의정서를 한데 묶어 핵무기 금지와 폐기를 추구하는 방안을 제안했는데, 예를 들면 조약에는 '핵무기로 인한 괴멸적인 인도적 결과에 비추어 안전보장의 수단으로서 핵무기에 의존하는 것을 장래에 걸쳐 포기한다'는 취지의 조문만 만들고, 구체적인 금지 사항이나 폐기와 검증에 관한 내용은 의정서에서 정하는 방식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만일 의정서가 발효되기까지 시간이 걸리더라도 조약 체결로 핵무기는 세계에 꼭 있어야 할 존재는 아니라는 국제사회의 의사가 결정되면, 그것이 반드시 핵시대의 종언(終焉)으로 이어지리라 확신합니다.

그 하나의 방향성으로서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⁶의 방식을 답습해 엄격한 발효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한 의정서는 발효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포함하는 사고방식도 있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조약의 주안점은 '핵무기 사용을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금지규범의 확립과 그 보편화'에 있기 때문입니다.

공동성명에 찬동한 125개국 이외에도 안전보장 상의 이유로 사용 금지는 쉽게 인정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괴멸적인 인도적 결과에 대한 우려를 공유하는 나라는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약의 기본구조에 '안전보장 상의 우려에 대한 배려'를 담보하는 제도적 보장을 마련한다면 더 많은 나라가 안심하고 가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방식의 옳고 그름은 차치하고 '비사용협정'도 최종 목적에 이르는 교두보에 지나지 않으므로 서둘러 핵무기 금지와 폐기를 향한 도전을 가속화해야 하며 시민사회가 연대하여 이를 지지해야 합니다.

⁶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

대기권 안팎, 수중(水中), 지하에서 핵을 폭발시키는 핵실험을 금지하는 조약으로 약칭은 CTBT이다. 1996년 9월, 유엔총회에서 채택했다. 아직 발효되지 않았으나 자발적인 핵실험 정지의 흐름을 뒷받침하고 국제감시체도를 정비하는 등, 조약의 존재가 일정한 역할을 완수했다. 발효하려면 핵무기 개발 능력이 있는 44개국이 모두 비준(批准)해야 하는 까다로운 조건이 있어 나머지 8개 나라의 비준이 필요하다.

SGI 청년부가 실시한 의식조사

그런 관점에서, 오슬로에서 연 국제회의에 이어 2월에 멕시코에서 열 '핵무기의 인도적 영향에 관한 국제회의'부터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투하된 지 70년이 되는 내년 8월까지가 중요합니다. 우리 SGI도 핵무기폐기국제캠페인(ICAN)을 비롯해 '핵무기 없는 세계'를 바라는 많은 단체와 힘을 합해 글로벌 민중의 의사, 특히 청년 세대의 목소리를 모으고자 합니다.

SGI 청년부는 9개국의 청년층을 대상으로 '핵무기의 비인도성'에 관한 의식을 조사해 그 결과를 지난해 4월에 NPT 재검토회의 준비위원회의 코넬 페르타 의장에게 제출했는데, 그 조사에서 90퍼센트 이상이 핵무기를 비인도적이라고 생각하며, 80퍼센트가 금지조약 제정을 지지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핵무기 없는 세계'를 건설하는 일은 핵무기의 위협을 없애는 것만이 목표가 아니라 평화와 공생의 시대로 가는 길을 민중의 손으로 개척하는 도전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장래의 세대를 포함해 모든 사람이 존엄을 빛내며 살아갈 수 있는 '지속가능한 지구사회'를 건설하는 데 필수 전제가 됩니다.

그것이 21세기에 사는 우리 민중이 연대해서 이루어야 할 가치창조의 도전이라고 한다면 그 핵심 주역은 청년입니다.

차대를 짊어질 청년들이 '핵무기가 야기하는 비극을 누구에게도 맛보게 하면 안 된다' '핵무기와 인류는 공존할 수 없다'는 생각을 모아 행동의 연대를 크게 넓힌다면 뛰어넘지 못할 벽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 SGI는 핵무기 폐기를 비롯해 지구 상에서 비참이라는 두 글자를 없애기 위해 청년 세대의 활동을 주축으로, 희망의 전망을 공유하는 사람들이나 단체와 협력해 가치창조의 만파를 힘차게 일으키고자 합니다.

참고문헌

1. ‘리질리언스 부활력’ 앤드루 줄리/앤 마리 힐리 저, 스가와 아야코 옮김, 다이아몬드사
2. <평화의 세기에 민중의 도전> 우시오 2014년 1월호 수록
3. ‘시련에 선 문명’ 아널드 토인비 저, 후카세 모토히로 옮김, 사회사상사
4. ‘나는 말랄라입니다’ 말랄라 유사프자이/크리스티나 램 저, 카네하라 미즈히토/니시다 요시코 옮김, 학연파블리싱
5. ‘고뇌하는 인간’ 야마다 구니오/마쓰다 미카 옮김, 춘추사
6. ‘숙명을 넘고 자신을 넘어서’ 빅토르 에밀 프랑클/F. 크로이처 저, 야마다 구니오/마쓰다 미카 옮김, 춘추사
7. ‘마키구치 쓰네사부로 전집 제5권’ 제삼문명사 취의
8. ‘나 자신과의 대화’ 넬슨 만델라 저, 윤길순 옮김, RHK
9. ‘자유를 향한 머나먼 길’ 넬슨 만델라 저, 김대중 옮김, 도서출판 두레
10. ‘피스 우먼(Peace Women)’안젤리카 로이터/안네 루퍼 저, 마쓰노 야스코/가미우라 린토 옮김, 에이지출판
11. ‘<탈성장(脫成長)>은 세계를 바꿀 수 있는가?’ 세르주 라투슈 저, 나카노 요시히로 옮김, 작품사
12. ‘양심의 트럼펫’ 마틴 루터 킹 저, 나카시마 와코 옮김, 미스즈쇼보
13. <자연과 문화-함마르셀드가 사랑한 것>, ‘세계평화를 향한 모험여행’ 수록, 흐루시초프 저, 고바시 미도리 옮김, 신평론
14. <지구혁명을 향한 도전> 동양학술연구 제52권 제2호 수록
15. 국제연합개발계획주일대표사무소 홈페이지
16. ‘전쟁과 평화’ 오사와 마사미치 옮김, 호세이대학교 출판국 인용·참조
17. ‘인도(人道)의 세기로’ 라다크리슈난/이케다 다이사쿠 저, 제삼문명사
18. ‘비폭력 정신과 대화’ 모리모토 다쓰오 옮김, 제삼문명사
19. ‘나의 비폭력 투쟁’ 모리모토 다쓰오 옮김, 제삼문명사
20. ‘왜 우리는 기다릴 수 없는가’ 마틴 루터 킹 저, 나카시마 와코/후루카와 히로미 옮김, 미스즈쇼보
21. ‘지구 공공재(地球公共財)’ 인게 카울/이사벨 그룬버그/맥 A 스텐 편, FASID국제개발연구센터 옮김, 니혼케이자이신문사
22. ‘마키구치 쓰네사부로 전집 제2권’ 제삼문명사, 현대표기로 개정

23. <피스 디포 ‘핵무기·핵실험 모니터’> 제433-4호, 제419-20호, 제427-8호, 제429호
24. ‘핵 비확산에서 핵폐기로’ 우라다 겐지 편저, 헌법학사
25. ‘핵의 아메리카’ 요시다 후미히코 저, 이와나미서점
26. ‘아토믹 고스트’ 오타 마사카쓰 저, 고단사
27. ‘도다 조세이 전집 제3권’
28. ‘이어북 <핵군축, 평화2013>’ NPO법인 피스 디포 발행, 우메바야시 히로미치 감수